국민건강지식센터

보도자료

배포일 : 2015.02.26 보도일시 :

담당자 : 김보연 연구원 (02-740-8996)

‘빅데이터, 국민 건강의 패러다임을 바꾼다

국민건강지식센터 ‘제 11회 국민건강나눔포럼’ 성황리 개최

□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‘타임’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태어난 아이의 수명은 142살이다. 50년 전 불과 52살에 그치던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 역시 83세를 넘어서는 등 인간의 수명은 빠른 속도로 연장되는 추세다.

□ 그러나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는 건 그만큼 질병에 노출될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은 19조 3551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. 이는 전년 대비 9.1% 증가한 수치로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는 더욱 빨라 질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때문에 보건의료분야는 ‘건강한 고령화’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. 보건의료분야가 빅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다. 보건의료계의 빅데이터 활용은 유전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, 전염성 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(소장 노동영 교수)는 지난 25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‘11회 국민건강나눔포럼’을 열고 ‘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정보의 미래’라는 주제로 논의했다.

□ 1,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

연구 성과와 향후 활용방안, 정부 정책수립 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다.

□ 특히 이번포럼은 건강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일반인은 물론 학계와 정부기관, 산업계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으며 문전성시를 이뤘다.

□ 1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건보공단) 빅데이터 운영팀의 박종헌 박사는 '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방안'에 대해 설명했다. 박종헌 박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12년간(2002~2013)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건강정보를 담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.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학회 및 연구기관에 지원돼 질병인과 관계 연구는 물론 발병 예측과 치료 연구 등에 사용되고 있다. 또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생활습관과 가족력, 진료내역, 검진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

□ 이어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'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건학적 가능성과 도전'에 대해 발표했다. 조영태 교수는 지금까지의 헬스케어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, 즉 병원이나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개인이 착용 또는 소지하고 이동 가능한 mHealth(mobile·이동성이 있는 + Health)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헬스케어라고 설명했다. mHealth는 모든 개인 건강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축적·분석하는 만큼 제 3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이 직접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에만 의사에게 제공한다. 더불어 조 교수는 현재 연구 중에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mHealth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해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. 조 교수는 스마트폰의 소음센서를 이용해 제작한 서울시의 시간별 소음지도와 위치기록 기능을 이용해 기록한 삶의 영역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개인

의 노출 환경에 따른 건강지수 측정과 그에 따른 체계적 건강관리가 가능함을 시사했다.

□ 2부에서는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교수가 '소셜네트워크 분석의 의미와 실체'에 대해 설명했다. 장 교수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 간 관계망 분석은 전염병 확산 경로와 특징은 물론 예측을 가능케 해 전염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. 특히 소셜네트워크 분석은 구조화를 통한 사회현상의 문제점 관찰 및 분석과 중개자(brokerage)를 통한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혁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.

□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김용학 ㈜타파크로스 대표이사는 ‘소셜데이터를 통해 본 건강인식과 건강행동’에 대해 강연했다. 특히 개인의 생활패턴을 감지하고 기록하는 스마트 센서를 통해 적절한 운동과 식단, 건강 진단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헬스케어를 제안했다. 이 같은 헬스케어는 소셜네트워크상에 누적된 건강데이터와 개인의 실시간 신체 데이터를 결합해 제공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라이프 플래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.

□ 이날 사회를 맡은 국민건강지식센터 박준동 교수(국민건강지식센터 부소장,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)는 포럼을 마무리하며 “보건의학 분야의 빅데이터는 연구와 검증 작업을 거치며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있다”며 “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질병예측 연구의 발전과 건강증진 계획 수립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□ 한편,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2개월에 한번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‘국민건강나눔포럼’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포럼은 4월에 열릴 예정이다. 11회 포럼 자료집은 국민건강지식센터 홈페이지(http://hqcenter.snu.ac.kr)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

[붙임 : 11회 국민건강나눔포럼]

△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의 ‘11회 국민건강나눔포럼’에서 김용학 ㈜타파크로스 대표이사는 ‘소셜데이터를 통해 본 건강인식과 건강행동’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.

△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의 ‘11회 국민건강나눔포럼’에서 조영태 교수(서울대 보건대학원)는 ‘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건학적 가능성과 도전’에 대해 발표해 청중의 주목을 받았다.